

‘금강경’ 읽으면 피부가 맑아진다?

일본불교 제대로 알아야 하는 까닭



前 영산대 총장 정천구 박사

마음안정→ 정신·육체의 변화→ 건강한 사람

인가. 장공을 가르는 새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피안의 세계를 그려본다. 하지만 늘 추락의 아픔을 겪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갑증을 느끼게 된다.

삶에 대한 근본문제에 대해 성찰해보고, 진리를 찾아보고 싶다면 <금강경>에 관심을 가져보자.

前 영산대 총장인 정천구 교수가 이룬 중심이 아닌 ‘공부’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 수행인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금강경 공부하기>는 <금강경>의 핵심을 찾아주는 좋은 안내자다.

경의 명칭과 유래, 금강경의 요체, 수행의 방법과 단계, 경의 수치 독송, 상을 떠난 수행 공덕, 무아로 하나 되는 공부, 복과 해를 닦음, 법신과 하나 되는 공부, 부처님 경지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금강경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

저자는 말한다 “금강경을 읽어 바치는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처음엔 피부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더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정신적 변화와 함께 육체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정신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저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대승불교의 덕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공부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도라는 세계에 도달한 초월자의 세계를 그려보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비록 현실이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복락과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이 시대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종교와 종파는 다르더라도 진리는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참된 삶의 길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책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금강경 공부하기 정천구 지음 해령 | 1만2000원

‘탐심을 일으키면 어두운 세포가, 진심을 일으키면 독성이 있는 세포가, 그리고 치심을 일으키면 탁한 세포가 만들어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탐, 진, 치를 닦고 몸뚱이 집착하는 마음을 바치면 청정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마음이 청정하면 여러 마음이 청정하고 여러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해진다.’

과연 무엇이 인간의 고통을 없애 줄 것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 균형있게 비평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과연 ‘일본불교’는 어떻게? 일본불교의 사원은 6세기 중엽 백제의 성왕에 의해 전해진 ‘백제불교’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일본학자들이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복사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불교의 빛과 그림자>의 저자인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는 ‘일본불교와 우리 불교의 이질다소 소통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방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일본불교의 ‘전모’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일본불교학자들의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복사와 같은 양상’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 같은 견해에 대해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법불교와 일음교’에서 일본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 선택과 전수, 배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회통을 추구하는 우리 불교와의 차이를 밝혀나가고 있

다. 이밖에도 인권을 생각하며 교토학과 바라보기, 이즈쓰 도시히코를 아십니까, 세계는 지금 노르웨이로 가고 있다 등 학문 선진국으로서의 일본 불교와 철학파의 동향을 소개한다. 일본불교의 이해를 돕고자 ‘일본 불교 교유명사 소사전’과 ‘한국-일본 불교사 연표’도 붙였다.

이 책은 저자가 2002~2003년 일본 교토 불교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일본불교를 주제적으로 파악하면서 쓴 책이다.

책에는 ‘일본’과 ‘우리 나라’라는 국수적 틀을 벗어나, 보편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는 33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은, 한국의 불교학자에 의해서 행해진 일본불교에 대한 최초의 평가보고서이며, 동시에 우리 불교와 불교학의 내일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예견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일본불교를 전공하는 학자



일본불교의 빛과 그림자 김호성 지음 정우서적 | 1만원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

가 아니라는 점도 이해된다. 그래서 저자의 관심은 ‘일본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있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일본불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주장한다. 저자는 현재 온라인 ‘일본불교사 공부방’ 운영과 비정기 간행물 <일본불교사 공부방> 발행, 일본불교 이해를 위한 ‘일본불교사 강좌 기행’ 등의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진영과 찬문: 참 아닌 참의 세계 신대현 지음 해인 | 2만5000원

깨달음의 노래를 진영으로 듣는다

도상의 이해 · 찬문 속의 생애 등 고승 만나는 길

고승 진영은 초상화라는 일반 회화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 짙다. 고승 진영 자체로 연구되고 감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상화의 한 부분으로만 인정되어 온 듯한 아쉬움이 크다.

<진영과 찬문: 참 아닌 참의 세계>는 진영을 통한 주인공의 일생, 진영에 적힌 찬문을 지은 사람과 주인공과의 관계, 찬문의 뜻과 가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그 진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져보고자 한 것이다.

이윽고 진영에 그려지는 정형화된 표현들이 의미미가 그려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는 것도 가늠해 보지 않았다.

또 찬문은 진영의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그림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학술적인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찬문에는 그림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행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오한 철학까지 짧은 글 속에 녹아 있어 그야말로 초월산인의 경지를 보인다. 그들이 왜 ‘고승’인가를 그야말로 실감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1부에서 우리나라 고승진영의 역사, 의미, 인물과 사물의 상징성과 표식, 찬문의 세계와 내용, 진영을 연구한 글들이 소개된다.

2부에서는 벽송 지엄, 청허 휴경, 환성 지안, 초의 의순 스님들의 대표적 진영 20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그림에 도상적 설명을 붙이고, 그 찬문의 의미와 내용을 통해 보는 고승들의 삶을 해설한다.

부록으로는 본문의 내용 일부가 영문으로 번역돼 실려있다.

우리나라 불교문화 및 미술을 영어권에 소개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시도로 보여진다.

김원우 기자

삼법인과 위빠사나 ‘관계규명’

수행통해 ‘당면문제’ 푸는 길 제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나와 다른 이들의 문제들,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서로 수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데, 붓다는 그것들의 궁극적 해결을 알려 주었다.

그 해결책이란 간단하다. 즉, 그것에 걸려 있고 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도 없다. 말하자면 그런 문제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다. 만일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 문제들은 실로 뚫털거리가 된다. 더불어 그 많은 문제들의 끝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위빠사나의 가르침을 담은 이 책은 불교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내세우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의 ‘다르마’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숲에서 수행을 하는 ‘두타행’을 실천해온 저자의 삶을 통해 지열한 수행의 참모습을 살피도록 인도하고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아잔 차 | 역사 아날라 무우수 | 8500원

있다. 불교의 교리이자 존재의 특성인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등 삼법인(三法印)과 위빠사나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지은이 아잔 차(Ajahn Chah, 1918~1992)는 완고하고도 명쾌한 법문으로 동-서양 불교도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태국의 대선사이다. 아잔 차는 존 카밧진, 사문 살즈버그, 잭 콘필드 등을 비롯한 서양의 불교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정신적인 스승으로, 현재 그가 세운 왓빠봉 사원은 태국 내 250여 지부와 전 세계에 수십여 수행센터 및 자매사원들을 갖고 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법성계(머음하네 펼쳐진 우주) 의성조사, 정화, 1만2000원, 법공양
 - 불교는 하나다 함상호, 1만8000원, 복인
 - 살자는법99 최정희, 8000원, 우리출판사
 - 일본다도의 마음 셴 겐시즈, 2만3000원, 다도
 -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한임대원, 1만3000원, 현대불교신문사
- 도서주문 (02)2004-8219

한국재가불교의 새 장을 열어가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 땅의 불교중흥을 위해 1975년 설립된 (재)대한불교진흥원은 설립자인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받들고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불교방송 설립 지원 및 군 포교와 불교중단, 단체 지원, 국제 불교포교, 불서 간행 등을 비롯하여, 오늘날 한국불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육, 학술,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의 최일선에서 국내외의 포교 불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02-719-1855, 팩스 02-719-5052 www.kbpf.org

2년에 고등학교 졸업장!

지역에 관계없이 대학처럼운영하는
미륵사 부설 교육청지정 학력인정학교임
학령기를 놓친 스님 또는 불자님에게
고등학교 졸업기회부여!

- 자 격 : 중학교 졸업자
- 모집기간 : 2007. 2. 20까지
- 구 분 : 보통과, 전통예술 (불교미술:단청, 탕화, 불교음악:범패)
- ※ 본교를 졸업하면 범음범패는 물론 대학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yeun.sc.kr 주간 야간운영
- 문 의 : 055)583-6300 011-1752-6800

학력인정 연꽃자유고등학교
교장 일광스님